

중국, 석유 수입의존도 60% 달해

수요 2011년 46억톤으로 세계 2위 ... 1차 에너지 비중은 18% 불과

중국의 2013년 석유 수입의존도가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소장 가오스젠(高世憲)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석유무역대회에서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에 따라 석유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의 석유 수요는 2011년 46억톤으로 세계 2위의 석유소비대국이지만 1인당 석유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60%에 그치고 있으며 1차 에너지 소비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로 세계 평균 33%에 비해 크게 낮아 앞으로도 계속 석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오스젠은 2012년 8월 이후 중국 경제하강이 멈추면서 석유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중산(鐘山) 부부장은 2000-2010년 세계의 기초 에너지소비량이 연평균 2.67%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3% 증가하는 등 에너지 소비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등이 활성화하면 북미지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대비해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11년 해외에서 총 1억5000톤의 석유를 생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21>